공연, 이제 저렴하게 즐기세요

'사랑 티켓' 광주 사업비 작년보다 5천만원 늘어
'문화 바우처' 저소득층 1인당 연 5만원 지원
'기브 티켓' 초중고생·교사 등 50~80% 할인

'공연과 전시, 저렴하게 관람하자.'

사랑티켓, 문화바우처, 기브티켓(give ticket)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각종 제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사랑티켓의 경우 올해 예산이 대폭 늘어난 데다, 조만간 티켓을 오픈할 예정인 광주국제공연예술제 참가작품들도 모두 사랑티켓으로 구입할 수 있어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랑티켓

예술향유 계층 확대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연·전시 관람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티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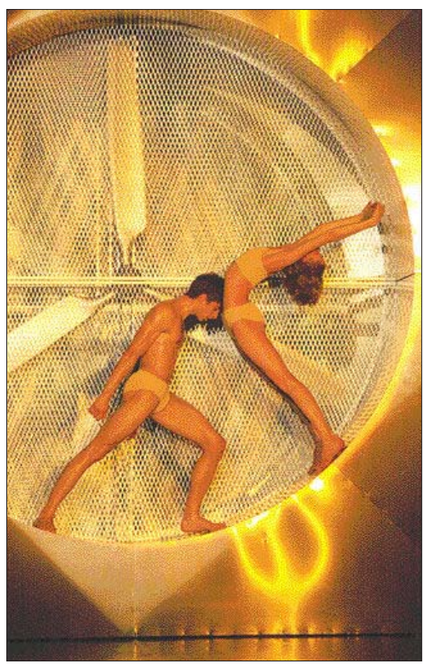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광주의 경우 전체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으로 지난해 7천만원에 비해 5천만원이나 확대됐다. 개별 지원금 역시 개인 회원의 경우 5천원에서 7천원으로, 단체는 3천원에서 5천원으로 2천원씩 늘어났다.

또 지난해까지 광주 지역 단체들의 공연만 지원했던 데서 벗어나 올해 부터는 서울 등 타지역 단체들의 공연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광주시립예술단체 공연도 참여시키기 위해 협의중이다.

지원 대상은 아동·청소년(3~26세), 65세 이상 노인이며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저소득층은 '문화바우처'로 일원화 시켰다.

광주의 경우 광주예총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공연, 전시 검색 및 예약은 사랑티켓 홈페이지(www.sati.or.kr)에서 이뤄진다.

4~7월까지 광주 지역 사랑티켓 이용 작품은 극단 진달래 피네의 '도덕적 도둑' 등 14개였으며 이용금액은 총 2천700만원이었다. 또 전체 이용객 중 개인은 481명, 단체는 1천78명이었다.



사랑티켓, 기브티켓 등 다양한 할인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사랑티켓으로 관람이 가능한 광주국제공연예술제 참가작 '로미오와 줄리엣'(이탈리아 아르떼발레또 작품)

사랑티켓 참가작은 티켓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정한다. 9~10월에는 공연은 연극 '죽여주는 이야기', 어린이 뮤지컬 '벌거벗은 임금님',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의 '뿌리깊은 나무-김대건 신부' 등 모두 22개 작품을 선정했다. 문의 062-528-9207

▲문화바우처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진행하는 '문화바우처'는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예술 작품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연·영화·전시가 해당되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올해 광주 지역 예산은 모두 1억2천900만원이며 연간 지원액은 1인당 5만원이다. 관람 인원이 40명 이상일 때는 버스를, 지방 체험활동은 식사비(1인당 5천원)도 지원한다. 신나는 예술여행(artstour.or.kr)에 회원등록을 한 후 이용하면 된다.

지난 7월말 현재 광주에서는 '민들레 바람되어' 등 20여개 무대 작품과 무등시네마, 롯데시네마 영화 프로그램이 진행했으며 모두 3천200여명이 이용했다.

현재 어린이극 '벌거벗은 임금님' 등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문의 062-670-5742.

▲기브티켓

기브티켓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할인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래의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해 국·공립극장과 공연 단체의 객석 기부를 통해 명품 공연을 60~8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초중고생과 교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강사 등이다. 광주 지역의 경우 아직 참가단체가 없어 아쉽기는 하지만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대구오페라하우스, 김해문화의 전당 등 내로라하는 국내 대형 공연장이 기브티켓 제공 단체로 참여하고 있어 수준높은 공연을 저렴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기브티켓 홈페이지(http : //give.sati.or.kr)를 참조하면 현재 공연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4일 오전 재단 회의실에서 '국제큐레이터코스' 개강식을 갖고 약 한달간의 교육일정에 돌입했다.

광주비엔날레, 현대 미술 전시 기획·실행 전문가 양성

국제 큐레이터 코스 개강

한국·미국 등 15개국 26명 미술 전문가 참여

지오니 감독 등 강의·디자인비엔날레 참여도

광주비엔날레가 국제 현대 미술 전시 기획 및 실행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개설한 '국제큐레이터 코스'(GBICC·Gwangju Biennale International Course)가 24일 개강, 9월20일까지 약 한달간의 교육일정에 들어갔다.

24일 오전 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첫 수업에는 한국인 7명을 포함, 미국(3명), 이탈리아(3명), 독일(2명), 터키, 나이지리아, 인도, 벨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르비아 등 15개국 26명의 미술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지난 5월 두차례의 심사가 진행된 큐레이터 코스에는 총 28개국 114명이 지원, 높은 경쟁률을 보였었다.

광주비엔날레가 전세계 비엔날레 중 최초로 시도하는 국제큐레이터 코스에는 국제적 인지도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대거 강사진으로 참여, 전시 기획에서 홍보에 이르기까지 현대미술 전시 전반을 다루게 된다.

2008브뤼셀비엔날레 창설자 겸 예술감독인 바바라 반더린덴이 지도교수로 참여하며 마리케 반 할(네덜란드·2007 제1회 아테네비엔날레 총감독), 모센 모르타파비(미국·하버드 디자인대학원장), 마시밀리아노 지오니(이탈리아·2010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등이 강의를 맡는다.

참가자들은 서울과 광주 지역 미술현장 탐방, 참여자 발표, 그룹스터디를 진행하는 한편 오는 9월 18일 개막하는 2009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작품 설치 현장에 어시스턴트로 참여, 실전 경험도 쌓게 된다.

문의 062-608-422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기획·홍보 단원 공모

광주시립예술단체

광주시는 광주시립예술단체 기획·홍보 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예술단체 홍보 요원을 모집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예술단체의 홍보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모집인원은 교향악단, 국극단, 무용단, 합창단 각 1명씩 모두 4명이며 원서는 오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접수한다.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오는 9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 원서는 광주문예회관 홈페이지(http : //art.gjcity.net)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062-510-926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내 전시는 내가 만든다"

우제길미술관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강좌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가 주관하는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하반기 강좌가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 청주 등지에서 열린다.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는 2005년 '21세기 아티스트를 위한 Self Art Management'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예비작가 및 신진·중진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27일부터 매주 목요일 우제길미술관서 강의가 시작되며 서울은 9월3일부터 한미사진미술관서, 청주는 9월17일부터 신미술관서 개최된다.

강좌에서는 매니지먼트 전문가를 초빙해 전시 준비부터 기획, 홍보에 이르는 모든 과정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작성, 해외미술의 동향,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소개 등 작가 활동의 필수적인 사항을 교육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집트 문명전' 예술기행

대동문화재단

대동문화재단(대표 조상열)이 오는 29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이집트 문명전-파라오와 미라전'과 서울시립미술관의 '르누아르전'을 둘러보는 예술기행을 떠난다.

한국박물관 100주년 기념 전시로 기획된 '파라오와 미라전'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인 이집트 사람들의 삶 등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다.

또 '르누아르전'은 '행복을 그린 화가'로 불린 르누아르의 대표작 118점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다.

선착순 40명 모집하며 참가비는 회원·어린이는 6만5000원, 비회원은 7만원이다. 문의 062-674-656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여름 밤에 즐기는 '문화 향연'

상록전시관 26일 '농성동 블루스전' 야간 개관

상록공원에서는 통기타·트럼펫 등 7080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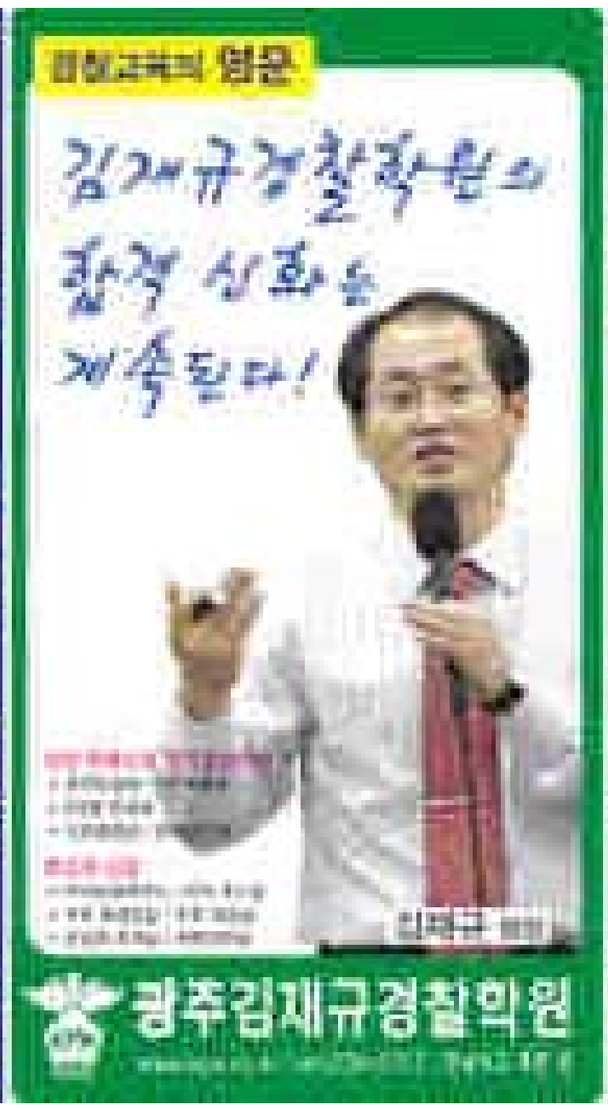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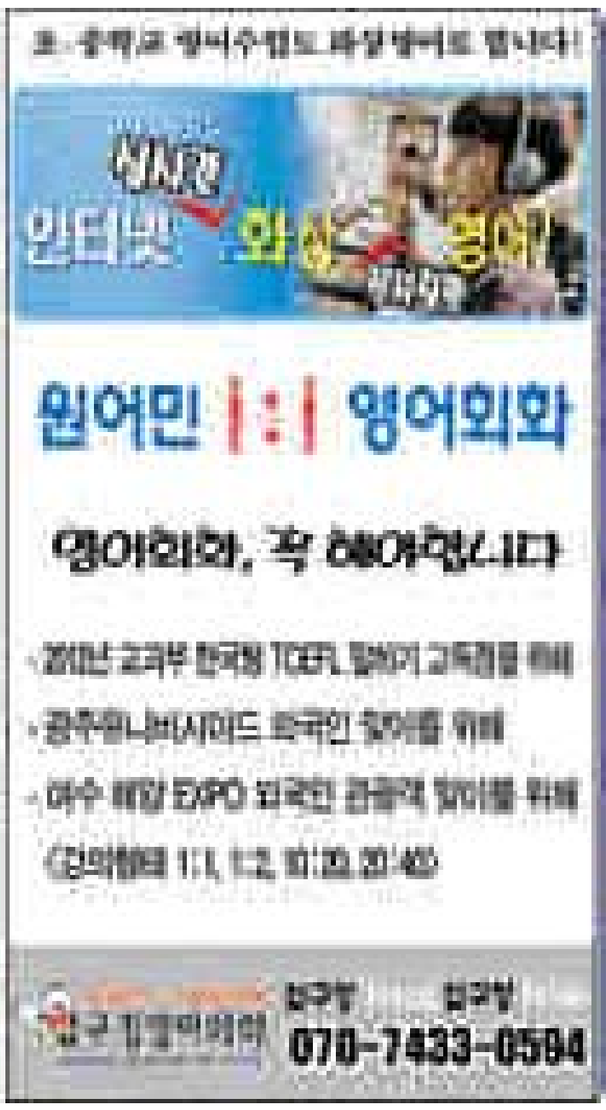
한여름 밤 전시와 공연 감상을 함께할 수 있는 문화향연이 펼쳐진다.

광주시 농성동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관장 장경화)은 26일 오후 9시까지 야간개관을 통해 주간에 관람이 어려웠던 직장인 등 문화 소외계층 등에게 전시와 공연 관람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번 야간개관은 서구청 주최로 열리는 '한여름 밤의 행복콘서트'와 함께하기 위한 것이다.

상록전시관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김일근, 씨킴, 정예금, 주대희, 최석운, 최재영, 허진, 황정후씨 등 8명의 미술인이 참여하는 '농성동 블루스전'이 열리고 있다.

또 이날 상록근린공원에서는 7080 통기타, 트럼펫 공연, 민요·퓨전 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장경화 관장은 "이번 야간개관과 콘서트는 농성사거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쉼터로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시·공연관람은 무료이며 우천시에는 야간개관과 콘서트 모두 연기된다. 문의 062-369-351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